

2018년도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8. 10. 12(금) 17:00
- 회의장소 : 아창제 사무국 회의실

2018년도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47작품으로, 초연부문 31작품, 재연부문 16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곡가들의 저마다의 감정과 사고를 관현악곡에 담아 낸 여러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현대음악의 진부한 형식 및 내용에서 탈피한 작품들이 많았던 점은 고무적이었다. 특히,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음악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작곡가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심의위원들은 과거 서구에서 지배적이었던 양식과 기술을 답습하고 있는 작품들보다는 자신의 음악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담긴 작품들, 오케스트라의 활용이 능숙한 작품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운드로 표현하는 작품들에 더 관심을 가졌다.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그에 맞는 적절한 기보나 주법들을 사용하여 찾아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작곡가가 원하는 소리를 심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기대한다는 것이 심의위원의 공통적인 바램이었다.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